

## 제6권 제2편

### 제2장 안산지역 노동운동의 형성과 전개

#### 제1절 안산 노동운동의 개요

노동운동의 역사는 어떤 대상을 어떤 관점으로 서술하는지에 따라 매우 달라진다. 이 글은 반월공단조성 이후 안산의 민주노조운동에 관여했던 주요 노동운동단체 및 노동조합 연대조직의 역사를 중심으로 다루었다. 민주노조운동으로 대상을 한정한 이유는, 우리가 노동운동을 자본과 국가로부터의 독립된 운동으로 본다면, 노동운동의 역사란 곧 ‘민주’노조운동이기 때문이다. 이와 더불어 우리는 민주노조운동에서 분기점을 형성했던 사건들을 기술하였다. 물론 자본과 국가의 무차별적 탄압에 대한 모든 저항이 노동운동에 중요하지만 여기서는 안산 노동운동에 커다란 영향을 미친 사건만 언급할 것이다.

안산지역의 노동운동은 합법·비합법 정치운동단체와 노동운동단체, 그리고 노동조합의 운동을 따로 논의할 수 없다. 노동운동이 전개된 이래 이런 단체들과 그에 속한 활동가들은 노동현장에 개입해왔고 정세에 따라 연대해왔다. 사실상 이들 단체와 활동가들이 오늘날까지 노동운동의 역사를 만들어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우리는 이들 간의 역학관계에 따라 안산 노동운동 역사를 몇 시기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 번째는 1986년 이전으로 초기 노동운동의 ‘형성기’이다. 반월공단의 노동자들이 늘어나고 이른바 ‘학출’이라 불리던 대학생 출신 노동자들이 활동을 전개하던 시기이다.<sup>1)</sup>

두 번째는 1986~1989년의 ‘성장기’이다. 지역 종교단체들이 본격적으로 활동을 시작하고, 비합법 노동운동단체들이 개별적·집단적으로 자리 잡은 시기이다. 특히 1987년 노동자대투쟁을 진후하여 합법 공간인 노동상담소 등의 지원을 받은 노동조합이 다수 결성되었다. 이 시기에는 지역 간 연대활동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져, 경기남부지역노동조합연합(약칭 ‘경기노련’)과 같은 노동운동단체를 출범시켰다. 안산지역은 경수지역노동자연합(약칭 ‘경수노련’)과 안산민주노동자연맹(약칭 ‘안산노련’)이 노동운동을 주도했는데, 당시는 노동조합이나 노동자 대중의 역량보다는 학출 노동자와 노동운동단체의 영향력이 더 컸다.

세 번째는 1989~1992년의 ‘전성기’로 지역연대와 노동조합활동이 가장 활발했던 기간이다. 이 시기는 1990년 1월에 출범하여 노동운동의 구심점이 된 전국노동조합협의회(약칭 ‘전노협’)의 전성기와 대략 겹친다. 이 시기의 노동운동은 정당운동으로 확대되어 노동자와 농민 등 기층민중의 이해를 대변하는 민중당을 결성하여 총선에 참여하기도 했다. 이 시기에도 경수노련과 안산노련이 안산 노동운동을 주도했으며, 노동자 대중의 역량은 노동자대투쟁과 경기노련 활동을 거치면서 상당히 증대했다. 한편으로는 노동운동단체 사이에 ‘변혁노선’을 둘러싼 갈등이 상존했지만 전반적으로 지역연대 기풍은 유지됐다.

네 번째는 1992~1994년의 ‘재편기’로 안산 노동운동의 첫 번째 세력재편기이다. 1991년 12월 31일에 소비에트연방(소련)이 해체되는 등 현실사회주의권이 몰락하고, 1992년 3월 24일에 치러진 제14대 국회의원선거에서 민중당이 1명의 당선자도 내지 못해 정당등록이 취소되면서, 소위 민중민주파(PD)

1) 노동운동에서 ‘학출’이란 대학생 출신 노동자 혹은 대학생 출신 노동운동을 뜻하는 용어이다. 특히 1980년대, 대학생들은 한국 사회 변화의 핵심 세력으로서 노동자, 혹은 노동계급을 새롭게 인식하고, 대규모로 공장으로 운동영역을 옮겨 노동운동에 투신했다. 한편, 이와 대립적 맥락에 있는 용어로서, ‘노출’이란 노동자 출신 노동운동을 뜻하는 용어이다.

의 다수가 노동운동을 청산하거나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약칭 '경실련') 노동자회로 합류해 시민운동으로 전환한다. 반면 당시까지 세력을 형성하지 못했던 이른바 민족해방파(NL) 계열은 한벗노동자회를 결성하여 노동조합에 대한 영향력을 강화했다. 이들과 PD계열 가운데 현장에 잔류한 소수가 안산노동자대표회의(약칭 '안노대')를 결성하고 경수노련 쪽 경기노련과 경쟁했다. 당시 갈등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약칭 '민주노총') 출범을 둘러싼 조직발전 논의와 노동운동의 전망을 중심으로 불거졌지만, 경쟁과 연대의 균형은 상대적으로 유지되었다.

다섯 번째는 1995~1999년의 '분열기', 혹은 '쇠퇴기'이다. 전노협 해산과 민주노총 출범을 두고 '경수노련-전노협 경기노련'과 '한벗노동자회, PD현장과-안노대'는 첨예하게 대립했다. 결국 경기지역의 경우 전자는 경기남부민주노총을, 후자는 민주노총경기남부협의회를 출범시켰다. 무엇보다 노동운동정과 간 갈등이 노동운동 현장에 영향을 끼치면서 지역의 연대투쟁 기풍은 쇠퇴했다. 이는 IMF 외환위기를 전후해 경기남부민주노총 소속 주요 민주노조들이 정부와 회사 측의 탄압으로 탈퇴 또는 해체될 때 극명하게 나타났다. 결과적으로 경기남부민주노총은 2001년에 현재와 같은 민주노총지구협의회체제로 통합했다. 이 시기를 전후하여 노동조합의 사업은 노동운동단체에서 민주노총으로 집중되었고 노동운동단체들은 정치 및 지역운동조직으로의 변화를 모색했다. 특히 노동운동이 분열되는 동안 경제위기로 인한 구조조정과 비정규직이 합법화되었고, 이주노동자가 급격하게 증가함으로써 노동운동 세력은 급격히 약화되었다.

마지막은 2000년 이후의 '침체기'이다. 안산지역의 노동운동은 활력을 잃었는데, 이 시기는 노동운동정과조직 간의 분열, 민주노총 중심의 사업방식, 지역연대투쟁의 형식화, 민주노조의 실리화와 개량화, 민주노조의 탈퇴와 와해, 미조직 및 이주노동자 연대사업의 실패로 요약될 수 있다. 또한 이런 상황에 대한 반응으로서, 노동운동이 작업장을 넘어 지역운동으로 전환을 모색하는 시기라고 할 수 있다.

## 제2절 안산 노동운동의 전개와 특징

### 1. 형성기(1986 이전) : 대학생 출신 노동자의 반월공단 유입

안산에 (학출들이) 84년도부터 조금 들어간 모양인데. 86년, 87년도 대항쟁 일어나기 전에 (검거·조작) 사건들이 많이 일어나요. 주로 자취방이 터지면서, 하여간 86, 87년도 전에 일찍 안산 현장에 들어가더라도, 그런 일 있고 나서는 싹 다 나가버려요. 그리고 그게 소문이 나가지고, 전부 짐 싸가지고 나가버리더라고. 이렇게 물갈이가 몇 번 된 거야 몇 번. 그래서 나중에 온 사람들이 자리를 잡았어요.<sup>2)</sup>

안산지역 최초의 노동운동은 1980년대 초반에 시작됐다. 반월공단이 1977년 3월에 착공되고 1979년부터 입주를 시작했지만, 공단기반시설 미비, 높은 공장부지 가격, 불경기 등으로 인해 분양은 지연되었다. 《반월공단보》(1987)에 의하면, 1983년 기준으로 입주업체가 554개, 고용인원은 2만 2,441명 정도였다. 한 제보자에 따르면, 1984년경은 한창 공단 부지를 조성 중이었는데, 도로가 포장되어 있지 않아서 비가 오면 진창이 되었다고 한다. 도시개발상 안산의 형성기는 1984년 전후인데, 1985년에는 입주업체가 953개, 고용인원이 4만 7,217명으로 불과 2년 사이에 두 배 가까이 증가했다. 여러 제보자들의 기억에 의하면 공단이 실제 운영된 시점은 1984년경으로 보인다.

본격적으로 공단이 가동되고 노동자들이 몰려들기 시작한 이 시점부터, 이른바 학출이라 불리던 대

2) ○○○(\*\*\*\*, \*, \*\*\*\*, \*\*\*\*)이 구술하였다.

학생들이 공장에 취업하여 안산지역에 들어오기 시작했다. 1987년의 민주화투쟁과 노동자대투쟁 이전에는 이들 학출이 노동운동을 주도했는데, 무엇보다 대학이 많았던 수도권은 지리적 여건상 노동현장에 쉽게 진입할 수 있었다. 이들은 1980년대 초중반까지는 대부분 경인지역으로 진출했었는데, 인근의 수원, 안양, 성남 등지에서 활동하다가 1984~1985년경부터 안산으로 들어오기 시작했고, 일부는 이미 안산에서 활동하고 있었다.

대학생들이 공단에 들어와 노동생활을 하던 방식은 개별적인 경우도 적지 않았지만 주로 소규모의 ‘현장이전팀<sup>3)</sup>’을 꾸려서 들어왔다. 그러나 노동운동에 대한 정부의 감시와 탄압으로 인해 학출들은 쉽게 정착하지 못하고 자주 ‘물갈이’됐다. 권위주의 군사 정권에 의한 검거와 구속은 주로 자취방을 불법으로 수색하여 이적표현물이나 여타 ‘건수를 잡아’ 용공조직으로 조작했고, 이에 신변의 위협을 느낀 학출들이 안산을 떠나는 경우가 많았다. 1985년경에 이와 같은 일련의 검거가 있었는데, 비록 다음 해에 일어난 사건이었지만 1986년에 결성된 안산지역노동자해방투쟁위원회에 대한 ‘노해투사건’도 동일한 연장선상에 있었다. 학출노동자 검거사건과 유사한 맥락으로 1986년 12월에는 공개적으로 활동하고 있던 민중교회에 대한 공안탄압이 있었다. 이른바 ‘안산목회자사건’은 노동자를 대상으로 민중목회를 하던 목사들과 전도사들을 국가보안법위반, 언론관계법위반 등으로 구속한 사건이었다. 1986년 이후 본격화된 안산 노동운동에서 안산목회자사건은 공개 노동운동단체에 대한 최초의 탄압사건이었다. 제보에 따르면, 당시 수사관들이 목회자들에게 ‘멍석말이’를 가하는 등 물리적인 고문과 폭력을 자행했다고 한다. 안산목회자사건 이후에도 계속해서 민중교회 활동을 했던 목회자도 많았으나 안산을 떠나는 경우도 있었다. 이와 같은 검거와 구속 등의 탄압에도 불구하고, 학출 노동자들은 꾸준히 노동현장으로 들어와 정착했으며, 향후 안산 노동운동의 뿌리이자 구심이 되었다.

## 2. 성장기(1986~1989)와 전성기(1989~1992) : 노동운동단체의 등장과 연대활동의 활성화

지난 9월 12일 오후 8시 안산 라성프라자 옆 보성상가 거리에서는 ‘경기남부공대위’ 주최로 원곡성당에서 열린 ‘살인적 공안권력응징 및 노동운동탄압분쇄 실천대회’와 같은 노동자·시민·학생 등 800여 명이 참석한 대대적인 가두시위가 전개되었다. 이날 시위가 크게 발전한 것은 금강공업사건 성격 자체가 공권력에 의한 살인만행일 뿐 아니라 9월 5일 2,000여 명이 참석한 한양대 집회를 통하여 대중적 분노가 한데로 모아졌고, 특히 11일 끝내 운명하신 ‘고 박성호 노동열사’의 죽음에 많은 사람들의 분노가 극에 달해있었기 때문이기도 했다. 보성상가 거리는 시위참석자들의 스크럼 대열로 뻘뻘이 들어찼고, “노동운동 탄압하는 노태우정권 타도하자!” “폭력진압 살인만행 안산경찰서 박살내자!” “열사의 뜻 이어받아 노동해방 앞당기자!”라는 구호가 곳곳에서 외쳐졌다. 약 100m의 도로를 점거한 채 1시간 30분가량 계속된 시위에서 최루탄을 난사하며 진압하는 경찰과 치열한 공방전이 벌어지면서 많은 시민들이 합류했다. 이날 시위 참석자들은 금강공업 살인 진압의 현장책임자(정보과장)와 안산경찰서장의 구속·처벌과 이 사건을 책임지고 내무부장관의 사퇴 및 금강공업노조의 인정과 공장의 정상가동을 요구했다.<sup>4)</sup>

3) 대학생들이 노동현장으로 진입하여 노동자가 되는 것을, 당시에 보통 ‘존재 이전(移轉)’이라고 했다. ‘존재이전’이란 대학생이자 지식인으로서의 자기 존재를 노동자, 혹은 노동운동가로 변화시킨다는 뜻이다. 당시 대학생들은 노동현장으로 진입하기 위해 필요한 이론적, 경험적 학습을 조직적으로 준비했는데, 이런 모임을 ‘현장이전팀’이라고 보통 불렀다.

4) 금강공업노동자집단살상경찰폭력분쇄전국공동대책위원회, 〈열사의 뜻이어 대규모거리시위 전개〉, 《공대위투쟁소식》 제2호, 1990. 9. 19,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민주화운동 아카이브즈(<http://contents.kdemo.or.kr>).



안산지역 노동운동의 본격적인 성장기는 1986년부터이다. 이때부터 노동운동을 지원하는 종교단체들이 생기기 시작했다. 이미 원곡성당(천주교), 원곡감리교회(대한기독교감리회), 반월교회(한국기독교장로회)가 있었고, 1986년 4월에는 안산노동교회(한국기독교장로회)가 활동을 시작했다. 이 가운데 안산지역 노동단체의 형태를 최초로 갖춘 곳은 원곡성당의 반월노동사목이었다. 원곡성당에 가톨릭노동청년회(JOC)가 구성되어 노동운동 활동가들이 1985년부터 소모임을 갖다가 합법공간인 반월노동사목을 개소한 것이다. 반월노동사목과 함께 민중교회들이 주요 합법공간이었는데, 1987년에 이들 세 교회를 중심으로 민중교회연합을 결성하여 공동 활동을 시작했다.

금강공업노동자집단살상경찰폭력분쇄공대위투쟁소식

[표 1] 안산 노동운동 형성기의 노동운동단체 현황

구분	범좌파③(PD, ND)		우파③(NL)	종교단체
	경수노련(노우협)	안산노련(PD좌파①)		
1987년 이전	노동자권익투쟁위원회	노동자해방투쟁위원회	개별 활동	개별 활동, 민중목회
노동운동단체	반월공단노동상담소 '밝은자리'(1987)	안산노동자의 집 '노동사랑'(1987)	안산노동상담소(1988) 노동교육연구소(1989)	반월노동사목(1986) 민중교회연합②(1987)
노동조합조직	공투본(1988)	공실위(1989)	중간노조, 자품회의(1989)	중간노조, 독립노조
	경기노련(1988)	경기노련(1989)	-	-
정당운동	진국연합 중심	한노당-민중당(1992)	비판적지지	-

비고 : ① <민중의 당> 후신인 <진보정치연합> 이 소수 세력. 여명, 노동계급 등은 개별적으로 활동하다 안산노련과 통합. 남한사회주의노동자동맹도 일부 존재. 1989년 이후 안산노련-공실위를 중심으로 연대하는 형태. ② 반월교회, 안산노동교회(반월공단노동상담소), 원곡교회, 성빛교회(1989년경 참여). ③ '범좌파', '좌파', '우파'는 노동운동 세력 내의 정치적 지향을 표현하는 용어. 보통, 좌파는 PD계열, 우파는 NL계열을 뜻하고, PD계열에 노우협(ND)을 합쳐 범좌파라 칭함.

한편, 1987년부터 노동운동단체들이 반월노동사목 같은 노동상담소의 형태로 등장하기 시작했다. 반월공단노동상담소(1987년 초), 안산노동자의 집(1987년 말), 안산노동상담소(1988년), 안산노동교육연구소(1989년)가 차례로 설립된 것이다. 이들 단체는 주로 노동문제 상담, 노동조합 결성과 지원, 노동조합 일상활동과 단체교섭, 노동자교육과 문화활동을 병행했다. 또 이들은 비합법 정파조직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했다. 반월공단노동상담소는 경수노련의 공개 공간이었으며, 문화공간으로 '밝은자리'가 있었다. 경수노련은 이후 결성된 노동운동단체협의회(약칭 '노우협')<sup>5)</sup>의 핵심 정치조직이자, 경기남부지역의 노동조합 연대체인 경기노련을 주도하는 세력이었다. 안산노동자의 집은 이른바 PD좌파계열인 안

5) 이는 1988년 6월에 진보적인 노동운동단체들이 연합해 결성한 전국적 노동운동연합조직이다. 직접적인 결성 계기는 1988년 임금투쟁 시기에 현대엔진 노동조합에 대한 공권력의 탄압에 진보적 노동운동진영이 전국적으로 공동대응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졌다. 주요 활동으로는 노동조합에 대한 일상적인 지원활동 이외에도, 전국민족민주운동연합과 전국노동조합협의회(약칭 '전노협', 민주노총의 전신) 등의 결성을 지원했으며, 1988년과 1989년 11월 전국노동자대회를 개최하기도 했다. 지역별로 협의회가 결성되어 1980년대 후반부터 한국 노동운동에 결정적인 기여를 했으며, 특히 안산과 수원 등 경기남부지역과 마산창원이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

산민주노동자연맹(약칭 ‘안민노련’ 혹은 ‘안산노련’)의 노동상담소였으며 ‘노동사랑’이라는 문화공간이 있었다. 안산노동상담소는 원래 대한예수교장로회의 도시산업선교회 계열에서 만든 조직으로 NL계열 활동가들을 중심으로 운영되었다. 마지막으로 안산노동교육연구소는 NL 가운데 석탑계열이 주로 활동했다. 이 가운데 ‘경수노련(비합법조직)-반월공단노동상담소(합법조직)’와 ‘안산노련(비합법조직)-노동자의 집(합법조직)’이 1992년 전후까지 노동운동을 주도·경합·연대하는 주요세력이었다. 한편, 이 시기까지 NL계열은 그다지 세력을 형성하지 못했다.

합법적이고 공개적인 공간으로서 노동상담소는 노동자대중의 역량이 성장하기 전인 1990년대 초반까지 노동운동의 주된 활동방식이었다. 그리고 이들 단체들은 경기노련과 같은 노동조합 연대조직이 등장하기 전에 초보적이거나 지역연대활동을 하고 있었다. 당시 지역연대회의에는 반월노동사목, 민중교회연합, 반월공단노동상담소, 안산노동자의 집, 안산노동상담소, 한양대학교안산캠퍼스총학생회<sup>6)</sup> 등이 참여했다. 이 회의에서 여러 노동운동단체는 안산지역의 정보를 교환했고, 또한 제한적이거나 연대활동을 조정하고 기획했다. 중요한 점은 이 연대회의에 참여했던 단체들 간의 부침이 사실상 향후 안산노동운동 역사에 분기점을 형성했다는 것이다. 한편으로, 연대회의에 참여하지 못한 소수세력이었지만 안산에서 오늘날까지 지속적인 활동을 하고 있는 정파조직도 일부 있었다. 예를 들어, <민중의 당> 후신이었던 PD계열의 <진보정당건설을 위한 정치연합<sup>7)</sup>>이 있었으며, 이 단체는 안산에 1988년부터 활동했다.

1987년 노동자대투쟁 시기는 정파운동의 역사에서 벗어나 특히 노동조합운동의 관점에서 살펴 볼 필요가 있다. 노동자대투쟁은 노동운동단체보다 노동자대중의 자생적인 투쟁이 분출한 경향이 강했기 때문이다. 여러 노동운동단체들과 비합법 정치조직들이 활발히 활동했던 1987년에, 알다시피 범국민적인 민주화운동과 노동자대투쟁이 발생했다. 당시 반월공단 내 제약회사에 다니던 한 제보자는 “그 해 8월에 노동자대투쟁이 있었고, 출근할 때 보니까 여기저기 공장들마다 머리띠를 메고 그랬어요. 그래서 회사에 출근해서 ‘우리도 재끼자. 우리가 파업해서 만들자’고 논의해서 바로 대표 뽑고 했어요.”<sup>8)</sup> 마찬가지로 당시를 경험한 어느 민중교회 목사는 “87년도에 안산이 매우 격렬했었다”고 전한다.<sup>9)</sup> 당시까지만 해도 억압적이고 병영적인 노동통제 아래서 안산지역 노동자들은 전반적으로 ‘무권리’ 상태였다. 보통 이들은 저임금과 장시간 노동, 높은 노동강도를 견디면서도 비인간적이고 비인격적인 ‘공돌이·공순이’ 취급을 당했는데, 그러한 울분이 한순간 일거에 터져 나온 것이다. 물론 반월공단과 공장뿐만 아니라 작업장 밖에서도, 노동자들의 자생적인 투쟁이 분출되었다. 예를 들어, 여러 제보자들이 당시 안산의 투쟁을 회상할 때 대표적인 가두연대투쟁으로 꼽는 라성호텔 시위는 종교단체들과 시민들의 연좌농성에 퇴근길 노동자들이 자발적으로 결합하여 대규모로 확산되었다.

[표 2] 안산·반월공단 연도별 신규 노동조합수와 결성률                      단위 : 년·개·%, 1992년 12월 현재

연도	1986 이전	1987	1988	1989	1990	1991	1992	누계	결성률
업체수	12	48	67	111	38	13	5	294	25.3

출전 : 1992년 12월 기준 반월공단의 가동업체 수는 1,161개(유승무, 《반월공업공단 노동자계급의 형성과정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사회학과 박사학위논문, 1993, 152쪽 재인용).

6) 한양대학교 안산캠퍼스의 운동권 학생들은 도시 형성기부터 노동운동에 결합했다.

7) 약칭 ‘진보연합’.

8) ○○○(\*\*\*\*, \*, \*\*\*\*, \*\*\*\*)이 구술하였다.

9) ○○○(\*\*\*\*, \*, \*\*\*\*, \*\*\*\*)이 구술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자생적 봉기’가 곧바로 노동조합 결성이나 노동조합 민주화 같은 조직된 형태로 이어진 것은 아니었다. [표 2]에서 보듯이 반월공단 노동조합 결성은 1987년 노동자대투쟁 당시가 아니라, 오히려 그 이후에 더 많았다. 왜냐하면 무엇보다 노동자대투쟁 당시에는 운동을 주도적으로 이끌어 갈 수 있는 주체와 역량이 노동자 내부에 미처 형성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 이후, 특히 1989년에 완화된 정세를 노동운동 진영이 적극 활용한 결과로 신규 노동조합결성이 늘어났다. 즉 1987~1989년에 노동자의 힘에 밀린 정부와 자본은 노동문제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지 못했는데, 안산 지역의 개별 기업들 역시 한 번도 경험한적 없는 ‘힘 있는’ 노동자들을 상대해야만 했다. 이런 국면을 이용하여 노동운동단체들이 안산에 대거 결성·진출했고 활동가들은 민주노조건설·사수투쟁을 본격화했다. 특히 반월공단은 단지마다 동일업종의 중소기업체들이 즐비했는데, 이는 노동자들의 자생적 투쟁이 들불처럼 확산될 수 있는 여건으로 작용했고, 이리 여건 속에서 공장 안팎의 활동가들은 단위사업장을 넘는 연대를 통해 광범위한 투쟁을 이끌어 냈다. 이러한 노동운동의 정치적 연대 분위기를 상징하는 사건은 1989년에 있었던 ‘600블록투쟁’이었다. 당시 반월공단 600블록은 마치 도미노를 연상시키듯이 블록 내 전체 사업장에서 노동조합이 건설되었고, 이는 인근 블록으로 확산되었다. 600블록투쟁은 안산을 넘어 노동조합 연대조직인 경기노련과 전노협을 결성하는 시발점이 되었다. 이런 연대투쟁 기풍은 전노협의 전성기라 할 수 있는 1989~1992년 시기에 안산에서 매우 강력했으며, 정파 간 경쟁으로 불가능했을지도 모르는 경기노련을 출범시키는 기층 동력이 되었다.

당시는 연대투쟁을 통해서 (여러 정파가) 같이 노조건설을 많이 했어요. 예를 들어, 풍산노련은 PD쪽 안산노련 학출이 주도했지만 같이 연대를 했고, 삼양케이블은 범좌파 세력(경수노련, 안산노련, 진보정치연합 등)이 같이 했었죠. 또 600블록투쟁에서 4개 사업장이 공동투쟁과 연대파업을 하면서 경기노련을 선언하고 발족한 셈이죠. 당시에는 지역차원의 선봉대를 조직하고 단위사업장들이 같이 안산역 앞이나 공단에서 집회를 했어요. 한 곳에서 치고 나오면 우르르 같이 했죠.<sup>10)</sup>

단위사업장을 넘어서는 정치적 연대형태를 좀 더 살펴보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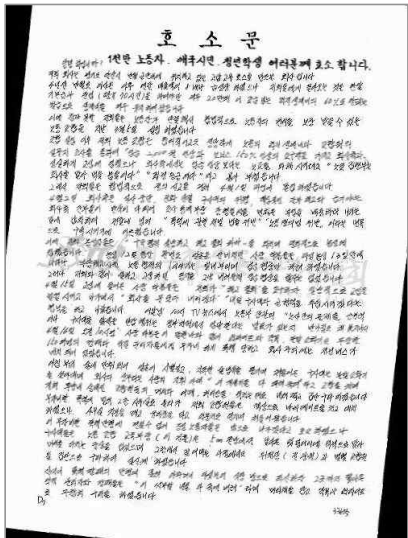
첫째, 경기노련 안산지부의 결성을 들 수 있다. 《전노협백서》<sup>11)</sup>에 따르면, 1988년 임금투쟁을 위해 경기남부지역노동조합임금인상대책위원회가 결성되었고, 안산지구 간사 노조인 삼양금속과 덕부진흥 등을 중심으로 노동조합과 노동운동단체들이 조직적으로 공동임금투쟁을 수행했다. 이 임금투쟁을 통해 안산지구에서 ‘동양고압고무 구사대 폭력난동’, ‘삼양금속 장기파업’ 등을 지원하면서 연대 역량을 모아나가 결과적으로 삼양금속이 승리함으로써 연대의 성과를 확보했다. 곧이어 8월 22일에 경기남부지역노동조합연합추진위원회가 안산지구에 결성되어 경기노련 건설을 위한 토대를 구축했다. 그해 12월 28일에 32개 노동조합이 참가한 가운데 경기노련이 결성되었는데, 안산지구는 10개 노동조합 약 2,000여 명이 참여했으며, 1989년 이후 상시적으로 활동하던 노동조합은 약 26~30개 정도였다. 한 제보자는 “전노협의 핵심이 경기노련과 마창노련이고, 경기노련의 핵심이 안산이었다”고 평가한다.<sup>12)</sup> 물론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전노협 소속 사업장들이 전체 노동자들의 이해를 대변했기 때문이다.

초기에는 안산, 수원, 오산, 화성, 평택에 경기남부 지부가 있었는데, 한국노총 반대세력과 전노협 미가입 사업장과 중간성향의 민주노조가 있었어요. 이런 중간노조들은 제조업이고 이해관계가 유사했기 때문에 정파가 달라도 공투본 등 연대체로 계속 활동을 했어요. 당시에 총대를 메고 사람

10) ○○○(\*\*\*\*, \*, \*\*\*\*, \*\*\*\*)이 구술하였다.

11) 전국노동조합협의회, <지역별 노동조합협의회와 업종별 노동조합협의회 결성>, 《전노협백서》, 2003.

12) ○○○(\*\*\*\*, \*, \*\*\*\*, \*\*\*\*)이 구술하였다.



구사대 폭력을 고발하는 동양고압고무노동조합의 호소문(1988)

을 대고 선도투쟁은 전노협 소속 사업장들이 다 했지만요. 일단 규모가 커지니까 자본입장에서 많이들 무서워했고, 자본 측에서 전노협으로 가지 않도록 임금이나 여러 당근을 제공했죠. 그 덕에 한국노총도 임금을 올리는 효과가 있었어요. 반월공단 노동자들이 올라가면 따라서 임금이 상승하는 거죠. 왜냐하면 전노협 투쟁이 전체노동자의 이해를 대변한 거죠.13)

둘째, 다음의 인용문에 언급된 것처럼, 노동운동단체들은 다양한 지역연대 활동을 전개했다. 대표적으로, 임단투(임금단체협상투쟁) 시기와 각종 노동현안들과 관련하여, 경기노련 지노협(지역노동조합협의회)뿐만 아니라 ‘공투본’(공동임금투쟁본부, 경수노련과 초기 경기노련이 중심)과 ‘공실위’(혹은 ‘공실’, 임금투쟁공동대책위원회, 안산노련과 PD계열이 중심)를 구성했고, 여타 사안별로 ‘공대위’를 조직했다. 당시에는 공투본과 공실위에 속한 단위사업장들이 안산에서 주도적인 세력을 형성하여 적극적으로 연대사업을 수행했다. 여러 제보자들에 따르면, ‘경수노련-공투본’이 먼저 활동했고 ‘안산노련-공실위’가 조금 뒤에 활동했다고 한다. 1980년대 말에서 1992년까지, 두 단체가 안산지역의 노동운동을 양분했는데, 그 세력이 비슷했다고 보는 이들도 있지만, 대략 공투본에 참여한 노동조합이 좀 더 많았다고 한다.

셋째, 한국노동조합총연맹(약칭 ‘한국노총’)에 소속되어 있지만 민주노조를 지향하던 노동조합들이 안산지협의회를 구성하여 연대활동을 하고 있었다. 이들을 ‘중간노조’라고 불렀는데, 약 30명의 노동조합위원장들이 ‘건우회’라는 단체를 조직해 활동하였다.14) 여기에는 다양한 정파가 관여했으나, 주로 반월노동자들과 NL계열 분파인 석탄 안산노동교육연구소와 안산노동상담소 등의 단체들이 결합했다. 또한, 1989년 1월에 결성된 안산지역자동차부품노조위원장모임(약칭 ‘자품모임’)이 있었는데, 여기에 자동차부품 하청업체를 중심으로 약 7개 노조가 활동했다. 이들은 주로 NL성향의 운동조직으로 경기노련에는 가입하지 않은 채 공투본과 공대위 활동에 부분적으로 결합하여 활동했다. 비록 이러한 중간노조의 연대조직들이 운동 전체를 움직일 수 있을 정도로 세력을 하지는 못했지만, 안산 노동운동에서 다른 조직들과 ‘경쟁과 협력’을 병행함으로써 전체 민주노조운동에 활력을 불어 넣었다.

‘지노협 건설과정에서 지역포괄범위, 결성방식의 문제를 놓고 안산지역 민주노조 간의 입장 차이를 보이다가 결국은 매듭을 짓지 못하고 일부 노조(경수노련 사업장)가 지노협 건설을 강행하고 나머지 노조(안산노련과 PD 사업장)가 공실위를 결성하여 89년 임투를 따로 진행하게 된다. 89년 임투를 거치면서 경기노련을 지향하는 흐름과 공실위로 뭉친 흐름은 서로간의 지향하는 바가 같음을 이해하고 경기노련으로 통합하였으나, 당시 지역 민주노조들의 일부 흐름인 자품업종회의를 지향하는 흐름은 통합에 동의하지 않았다. 1989년 7월 2일 기존 지노협과 공실위가 통합대회를 안산역에서 1,000여 명의 조합원이 모인 가운데 힘 있게 치루어 지고 라성 앞까지 가두 행진을

- 13) ○○○(\*\*\*\*, \*, \*\*\*\*, \*\*\*\*)이 구술하였다.
- 14) 노동운동에서, 국가와 자본의 권력에서 독립하여 노동자의 권익을 추구하던 노동조합을 보통 ‘민주노조’라고 하고, 반대로 겉으로 이를 표방하지만 사실상 반(反)노동자적 입장에 있던 노동조합을 ‘어용노조’라고 한다. 보통, 당시까지의 한국노총 사업장들을 이렇게 불렀다. 한편, 대체로 민주노조의 성향을 보이지만, 한국노총이나 경기노련이나 전노협 등에 가입하지 않는 노동조합을 ‘중간노조’라고 불렀다.

별이며 민주노조의 깃발아래 새롭게 현재의 지노협이 출발하게 되었다.<sup>15)</sup>

인용문에서 보듯이, 당시에 민주노조 진영의 정파에 따른 연대조직들이 존재했고 이들 간의 정치적 전망 차이로 인한 알력도 만만치 않았지만, 전체 노동운동을 위한 연대투쟁의 기풍은 노동현장에서 당연시되었다. 한 제보자의 “안산은 큰 투쟁 속에서 입장이 경쟁하다가 정리되고 뭉쳐왔다”라는 말처럼, 노동운동은 투쟁을 통해 성장했던 것이다. 특히 이러한 투쟁을 통한 연대는 1990년 금강공업의 노조결성투쟁에서 확인된다. 금강공업투쟁 과정에 노동자 박성호와 원태조가 1990년 8월 30일, 회사 정문 앞에서 분신했고, 결국 투병 중에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당시 특정 정파를 떠나 전국적 연대 움직임이 일어났고 안산은 대대적인 연대와 가두시위에 휩싸였다. 노동자들은 안산시내 중심가였던 라성호텔 근처에서 경찰과 자주 대치했는데, 불행히도 현장지휘를 하던 경찰기동대 중대장이 사망하기도 했다. 이는 결과적으로 정부의 강력한 공안 개입을 낳아 전체 노동운동 지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평가도 있지만, 제보자들은 대체로 금강공업투쟁을 안산노동운동의 역사상 가장 중요한 사건이자 노동운동이 지역에 뿌리 내리는 확실한 계기였다고 본다. 예를 들어, 노동운동과 진노협의 활동이 “빨갱이가 하는 위험한 운동이 아니라 ‘우리’ 노동자에게 도움이 되는 운동이라는 인식이 정착”되었다.<sup>16)</sup>

여러 제보자들은 대체로 노동운동의 연대 기풍, 노동조합활동, 노동운동 투쟁력, 민중의식 변화라는 측면에서 1990년을 노동운동의 정점으로 평가했다. 다만 연대투쟁 기풍의 정점과 쇠퇴에 대한 평가는 제보자의 정치적 입장에 따라 달랐다. 대다수 제보자가 보기에 노동자대투쟁에서 전국노동자대표자회의(약칭 ‘전노대’) 이전까지, 즉 1992년 전후로는 안산 지역에서 연대투쟁이 잘 이루어졌다고 평가했고, 특히 범좌파는 이 시기를 노동운동의 정점으로 보았다. 반면에 NL계열은 조금 뒤인 전노대 시기를 연대활동, 노동조합운동, 노동운동단체 활동 측면에서 정점으로 파악했다. 하지만 어느 입장에서 보든지간에 전반적으로, 연대투쟁 기풍이 이후 서서히 감소하기는 했지만 경기노련과 안산지역노동자대표회의(약칭 ‘안노대’)가 경쟁적으로 활동하던 1994년까지는 이어졌다.

### 3. 재편기(1992~1994) : 변혁노선을 둘러싼 갈등과 운동 영역의 전환

당시 비합법조직은 경수노련 쪽이 권익투(노동자권익투쟁위원회) 활동도 열심히 하고, 매우 헌신적이었고 노동현장에 정착하는데 가장 헌신적이었어요. 다른 정파들은 그것을 너무 급진적이고 엘리트적이고 지식인 중심이고 정치적이라고 비판도 했어요. 그렇지만 굉장히 전투적으로, 단지 싸움을 잘 한다는 것이 아니라, 현장에 들어가서 공장에서 생활하는 것, 현장에서 노동자와 사는 걸 잘했고, 그것에 매우 성실했어요.<sup>17)</sup>

경수노련은 정파가 아니라 오직 노조 장악이 목적이었고, 노조운동에 대한 지원조직에 불과했고 정파적 경향이 전혀 없었어요. 투쟁을 지원하고 너무 강성적이고 노조를 장악하는 패권적인 운동을 조직의 자원으로 했을 뿐이죠. 기관지도 없었고 개인의 리더십에 좌우됐어요. 안산노련은 어떻게 하면 노동조합과 경제투쟁을 정치투쟁 쪽으로 끌어 올릴까 하고, 현장노동자들을 의식화시키는 활동을 많이 했죠. 안산노련은 무작정 전투적 투쟁이 목적이 아니라 정치운동이 목적이었

15) 유승무, 《반월공업공단 노동자계급의 형성과정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사회학과 박사학위논문, 1993, 155쪽.

16) ○○○(\*\*\*\*, \*, \*\*\*\*, \*\*\*\*)이 구술하였다.

17) ○○○(\*\*\*\*, \*, \*\*\*\*, \*\*\*\*)이 구술하였다.



고, 주력은 정치투쟁이고 노동자의식을 각성시키는 것이라고 봤죠. 경수노련은 이런 구조가 아니었어요.<sup>18)</sup>

안산 노동운동의 전반적인 연대 기풍에도 불구하고 정파 간의 갈등과 세력교체는 운동에 큰 영향을 끼쳤기 때문에, 전체 노동운동의 분화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정파구조를 파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당시의 노동운동은 노동운동단체들이 주도한데다가, 무엇보다도 이들은 노동조합과 ‘지도와 피지도’의 관계를 맺었다. 그러므로 노동운동단체들이 각자의 정치적 입장을 소속 단위사업장에 반영하는 형태로 노동현장에 영향력을 행사했다.

[표 3] 시기별 안산 노동조합운동의 변화와 쟁점

시기	범좌파		우파	민중교회① 노동사목	쟁점과 특징
	경수노련(노우협)	안산노련 (PD좌파)			
1989~1992	공투본(1988)	공실위(1989)	중간노조 자품회의 (1989)	중간노조 독립노조	변혁노선, 경기노련 패권성 경기노련 중심, 연대투쟁 활발
	경기노련(1988)	경기노련(1989)			
1992	경기노련	경실련노동자회 (다수, 1992)	현장잔류 (소수)	한벗노동자회(1992)②	민중당선거패배, 현실사회주의 몰락, 좌파 현장이탈, NL세력형성
1993~1994		안노대(1993)③	안노대(1993)③	안노대(1993)③	민주노총출범논의, 경기노련 패권성, 경기노련과 안노대의 경쟁적 협조와 연대
1995~1997					민주노총안과 전노협정신계승, 경기노련과 안노대 균열 시작
1997~2001					민주노총경기남부협의회
2001 이후	민주노총경기남부협의회				노동운동 침체, 형식적 연대, 우파 패권성

비고 : ① 1991년까지 노동운동에 관여. 1992년까지 전노협 중심. 경수노련과 안산노련이 주요세력. 1993~1997년 경기노련과 안노대 경쟁. 노우협과 NL이 주요세력. 1997년 이후 경기남부민주노총(노우협)과 민주노총경기남부(민주노총, NL주도) 경쟁. 노우협 약화와 NL 중심으로 변화. ② NL노동운동단체, 안산노동상담소+반월노동사목+여타 우파. ③ 한벗노동자회+현장 잔류 좌파.

우리가 안산의 노동운동을 주요 정치조직 간 세력관계를 관찰해보면 노동운동을 여러 시기로 구분할 수 있다. 먼저 앞서 살펴본 대로, 1986년경에 주요 단체들의 활동가들이 개별적·집단적으로 안산에 진입했고, 이들은 1987년부터 1989년 사이에 각종 노동상담소라는 합법공간을 통해 모습을 드러냈다. 이러한 노동운동 형성기부터 1992년 총선까지 운동을 주도한 두 세력은 경수노련과 안산노련이었다. 안산노련 출신 제보자에 따르면, 안산노련은 주로 안산을 중심으로 활동했지만, 전국 여러 지역의 노동운동에도 개입했는데, 특히 수원, 오산, 화성, 거제, 포항 등을 포괄했다. 마찬가지로 경수노련도 안산뿐만 아니라 적어도 경기남부 각 지역에서 활동했다. 경수노련과 PD계열을 통칭하여 범좌파라고 한다면, 당시에는 범좌파가 안산 노동운동을 주도했던 셈이다. PD계열의 경우 여러 단체 가운데, 안산노련이 다수파였고 다른 좌파 조직들은 소수에 불과하여 독자적인 세력을 형성하지 못하고, 개별적으로 활동하거나 주로 안산노련을 중심으로 연대활동을 했다.

이 시기는 연대투쟁이 상대적으로 활발했지만 노동운동 정파들 간에 ‘변혁적’ 운동노선을 둘러싼

18) ○○○(\*\*\*\*, \*, \*\*\*, \*\*\*\*)이 구술하였다. 구술과 달리 경수노련은 1988년에 기관지 《진진하는 노동자》를 발행했다.

갈등은 격심했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경기노련이 성립되기 전부터, 경수노련이 영향력을 행사하던 사업장들은 ‘공투본’을 중심으로 활동했고, 안산노련과 PD계열은 ‘공투위’를 결성하여 노동조합 사업과 연대활동을 두고 연대·경쟁했다. 한편 경수노련과 안산노련의 영향력이 비교적 약했던 중간노조와 자품모임은 ‘공투본’과 ‘공실위’에 부분적으로 연대했고 이런 흐름은 전노협 경기노련 시기까지 이어졌다. 두 단체는 1989년에 노동자 대중조직인 경기노련 안산지구로 통합했지만 이면의 갈등은 사실상 지속되었다.

이런 상황에서 당시 큰 세력을 얻지 못했던 안산노동상담소와 반월노동사목 등은 어느 편에 서지도 않았지만 그렇다고 자신의 입장을 관철하지도 못했다. 이런 상황은 주로 NL계열 민주노조인 안산시협의회 중간노조들과 ‘자품회의’ 소속 사업장에서도 재현되었다. 따라서 이 시기 안산지역은 경기노련 내 경수노련 사업장(노운협)과 안산노련 사업장(PD좌파), 중간노조 등 독립된 민주노조(이상 주로 NL)로 나뉘어져 있었다. 노동운동단체들 간, 나아가 노동조합들 간 이런 기본 구도는 정세에 따라 변화했지만, 전노협 전성기를 거치고 PD계열 가운데 다수가 1992년에 시민운동으로 운동방향을 전환할 때까지 이어졌다.

민중당 선거 이후에 청산주의로 가는 경우, 변호사 등 전문성을 획득하는 경우, 학계로 공부하겠다고 간 경우, 그리고 시민운동으로 전환한 경우가 있어요. 안산은 대다수가 시민운동으로 전환했고 일부가 남아서 진정추(진보정당추진위원회)를 했어요. 민중당 이후 경실련으로 많이 갔는데, (사회주의라는) 허망한 깃발 들고 있지 마라. 그래서 시민운동으로 전환을 했어요.<sup>19)</sup>

우리는 92년에 조금 늦게 왔는데, 92년도 (안산에) 왔을 때 소련 망하고 현장 들어온 (것을 취재하려고) 한겨레에서 인터뷰 왔더라구요. 무슨 생각으로 현장 왔냐고. 소련이 망했는데. 그래서 왜요, 소련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고. 현장이 있기 때문에 그냥 온 거지. 현장에서 노동하다가 열악한 노동현장을 바꿔야 되겠다(고 왔다 그랬더니), 별로 그렇게 인터뷰가 재미가 없었죠.<sup>20)</sup>

안산 노동운동의 첫 번째 세력 교체는 1992년 총선 이후, PD계열 가운데 다수파가 시민운동으로 운동 노선과 영역을 전환한 때문이었다. 이는 PD좌파의 전국적인 노동운동 이탈과 궤를 같이했다. 이에 앞서 PD좌파 그룹과 경수노련의 갈등은 1990년대 초에 상당히 깊어졌다. 그러던 와중에 1992년 총선을 앞두고 양 진영 모두가 국회의원 선거에 참여하게 되었다. 구체적으로 먼저, 안산노련은 인천지역민주노동자연맹(약칭 ‘인민노련’), 민족통일민주주의노동자동맹(삼민동맹), 노동계급, 여명, 대구노동자투쟁동맹과 함께 한국사회주의노동당(약칭 ‘한노당’) 창당준비위원회를 구성하고 있었다. 이후 안산에서 활동하던 나머지 소수의 PD계열과 한노당이 기존의 민중당과 통합하여 통합민중당으로 총선을 준비했다. 반면에 경수노련은 자신들의 후보를 민중당이 아니라 전국연합 단일후보로 내세웠다. 후보 단일화를 진행하면서 심지어 경수노련 활동가가 자해하기도 했으나, 결국 격렬한 논쟁 끝에 경수노련과 안산노련은 후보 단일화에 실패하고 각자 ‘노동자후보’를 옥중 출마시켜 전체 운동의 분열상을 밖으로 노출시켰다.<sup>21)</sup> 한편 이때 NL계열 및 여타 단체들은 논의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못했는

19) ○○○(\*\*\*\*, \*, \*\*\*\*, \*\*\*\*)이 구술하였다.

20) ○○○(\*\*\*\*, \*, \*\*\*\*, \*\*\*\*)이 구술하였다.

21) 선거 정국에서 노태우 정권은 진보진영에 일대 조작·검거사건을 일으킨다. 안산과 관련해서 보면, 1991년에 일어난 경수노련이적단체조작사건 및 김승호 의장 수배가 대표적이다. 또한 ‘한노당’을 구성하여 정당운동을 준비하던 PD계열(인민노련, 삼민동맹, 노동계급, 안산노련, 여명, 대구노동자투쟁동맹 등)은 ‘민중당’과 통합을 논의하던 와중에 지도부가 구속된다. 유사한 맥락에서 안산지역 노동·민중운동단체에 대한 탄압으로 1992년 총선에 ‘노동자 후보’로 나섰던 두 후보 모두가 옥중에서 출마했다.

데, 이들은 선거에 개입하지 않는 쪽으로 결론을 내리고 안산이 아니라 인근 시흥에서 선거운동을 했다고 한다.

선거에서 노동자 후보의 분열은 지역 노동운동 진영과 노동자들에게 혼란을 주었으며, 두 후보 모두 선거에 패배하면서 노동운동 세력에 큰 변화를 가져왔다. 무엇보다 중요한 변화는 안산노련에 속했던 PD계열 좌파가 노동운동에서 대거 이탈한 것이었다. 물론 PD 계열 좌파가 운동 노선을 전환한 것이 민중당의 선거 패배와 당 해산에 따른 후유증 때문만은 아니었다. 이들은 프롤레타리아트 혁명을 주장하고 공산주의라는 이상을 구현하려고 했는데, 1989~1991년 소련을 비롯한 동유럽 현실사회주의 국가들이 잇따라 붕괴했고, 이런 일련의 사태가 이미 조직 내부에 커다란 충격을 주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이들은 1992년 이후 대체로 공산주의를 청산하거나, 아니면 경실련 노동자회(경실련 노동자위원회)로 합류하여 시민사회운동으로 노선을 전환했다. 역설적으로 안산노련 출신 활동가들은 안산 경실련을 중심으로 초기 안산 시민사회운동에 기여했고 오늘날까지 활동하고 있다. 이들은 이를 바탕으로 1990년대를 거치면서 진보 및 보수 제도권 정치무대에 진출했고, 특히 지방자치 시대를 맞아 안산의 정치에 관여했다. 한편 경실련노동자회는 1993년에 결성되었는데, 생산성 임금제나 산업평화를 강조하는 등 기본 '강성' 노선과 달리 온건하고 협조적인 유화적 노선을 채택했다. 하지만 총론적으로 1992년 안산노련의 노동운동 이탈은 지역 노동운동에 큰 혼란을 안겨주었고, 결과적으로 노동운동에 세력 재편을 가져왔다. 노동현장에서 사라진 PD계열 다수파로 인해 노동운동은 절반으로 축소되는 등 일시에 공백이 발생했으며, 이후 '한벗노동자회'를 중심으로 한 NL계열이 이런 공백을 메워갔지만 PD계열 다수파의 이탈은 노동운동이 점차 약해지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 4. 분열기(1995~1999) : 전노협 경기노련과 안노대의 경쟁과 분열

결론적으로 좌파는 사회주의 몰락 이후 현장 노동운동에서 이탈하고, 우파 민족주의 세력이 현장 토대를 가지게 되고, 노운협은 자기 조직이기주의가 과다해서 자가당착에 빠졌는데, 이들 간의 대립이 안산지역 노동운동을 쇠락시킨 겁니다. 그리고 민노총 출범이후 우파세력의 조직적 패권주의가 현재까지 상당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1993년 이전에는 공동투쟁과 연대투쟁이 있었지만, 93~94년 이후에 운동이 분화하고 대립하면서 가두투쟁 같은 대중집회가 감소하고 연대기풍이 사라지고, 96년부터 민주노총 중심의 집회는 연대가 형식적이고, 지역투쟁이 아닌 사업장별 연대 위주로 바뀌었고, 투쟁기풍이 사라지면서 투쟁적이지도 않게 된 겁니다. 90년대 말부터 현재까지 10년을 이런 형태로 왔습니다.<sup>22)</sup>

전노협 투쟁이 전체 노동자의 이해를 대변 한 거죠. 그러다가 노태우 때 탄압이 들어오고, 사회주의가 붕괴하면서 노동운동세력이 변혁을 포기하고, 또 YS 때 합법화 정책으로 당근을 제시하니, 중간적 (노동 세력) 부분이 요동 친 겁니다. 이 시기에 전노협을 해산하고 조직발전 전망을 더 크게 하자는 민노총 논의가 시작된 것이죠. 결국 중간노조가 개량화되고 실리노선으로 갔다고 할 수 있고, 그러다 보니 전노협 소속 사업장, 지노협 내에서도 그런 흐름이 발생한 거죠. 그때 논의가 무조건 지노협을 해산하고 중앙과 같이 가자는 쪽(주로 NL)과 중간노조하고, 반면 경기노련은 이걸 용납하지 못한다! 운동 포기하자는 거다!<sup>23)</sup>

22) ○○○(\*\*\*\*, \*, \*\*\*\*, \*\*\*\*)이 구술하였다.

23) ○○○(\*\*\*\*, \*, \*\*\*\*, \*\*\*\*)이 구술하였다.

노동운동은 1992년 이후 경수노련과 경기노련을 한 축으로 하고, 한벗노동자회와 노동현장에 잔류한 좌파들이 결합한 안노대를 다른 한 축으로 했다. 안산노동상담소를 중심으로 했던 한벗노동자회는 주로 NL계열 활동가들이 1992년에 결성한 반(半)합법 조직이었고 반월노동사목과는 협력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다. 먼저 경수노련과 안산노련의 틈에서 이들은 세력을 형성할 필요성을 강하게 느끼고 있었지만, 한벗노동자회의 결성은 당시 구로, 성남, 안양 등지의 공장 감소로 인해 NL계열 활동가들이 안산으로 자연스럽게 유입된 상황적 조건도 작용했다.

한편, 전국적인 차원에서 1993년부터 민주노총 건설 논의가 시작되었다. 이 논의는 지역 단위와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했던 전노협을 ‘발전적으로’ 해산하여 사무직을 중심으로 했던 ‘업종회의’, 대기업노조를 단일 조직으로 포괄하고자 했다. 이런 흐름에서 전국차원에서는 전노대가 결성되었고 안산지역에는 안노대가 결성되었는데, 여기에 경기노련 탈퇴 사업장, 전노협 미가입 중간노조, 노조건설추진위원회 등이 참여했다. 따라서 안산에는 기존의 전노협, 경기노련과 새로 결성된 안노대가 경쟁관계에 놓이게 되었다. 당시의 쟁점은 노동운동 내 (범)좌파와 우파의 대립이라기보다는 민주노총 건설을 둘러싸고, 노동운동에서 ‘전노협 정신 계승’과 ‘지역의 역할’이 특히 중요했다. 일반적으로 노운협은 전노협 정신과 지역 노동운동을 강조했는데, 이는 내용적으로 특정 지역의 자율성보다는 전체 운동의 위계적 통합을 강조했던 산별노조 방안과 충돌했다. 반면에 안노대에 참여했던 입장들은 중소기업장과 지역 운동의 한계를 넘어설 수 있는 보다 포괄적인 틀이 전체 노동 세력을 견인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집권화된 민주노총을 건설하는 방안을 선호했다. 또 다른 쟁점은 노운협의 운동방식에 대한 비판을 중요했는데, 이는 노동조합 장악에만 치중하는 ‘패권성’, 상층 엘리트 중심주의, 무조건 싸우려는 ‘전투적 기풍’에 대한 공격이었다. 이러한 비판은 경수노련이 안산노련과 경쟁하던 시기부터 있었던 단골 레파토리였지만, NL계열은 특히나 反(반)엘리트주의를 내세우는 대중노선을 강조했고 이런 주장은 실제로 ‘전투적인’ 투쟁을 부담스러워하던 현장에 파고들어 결과적으로 한벗노동자회의 현장 영향력은 급속히 확장되었다.<sup>24)</sup>

전노협 시기는 단체(특히 노운협)가 노조를 지도했던 시기였다고 한다면, 한벗노동자회는 노동조합의 자발적 주체성을 강조하면서 외곽노동단체들의 투쟁노선, ‘지도-피지도 관계’를 치고 (즉, 비판하면서) 들어갔습니다. 한편으로 한벗노동자회가 안노대로 가는 시기에 이렇게 주장했는데, 다른 한편으로 실제로는 우파들이 보이지 않게 내부적으로 현장을 조직해 들어갔습니다. 이 시기부터 단체와 노조운동의 괴리가 발생했습니다. (민주노총 이후) 노조가 단체를 터부시하고 자체동력을 만들어 나가다가, 단체와 노조관계가 반대로 뒤집히고, 결과적으로 서로의 결합력이 떨어졌습니다. 노운협과 노조의 관계가 ‘지도-피지도’였다면, 우파가 수평적 관계를 주장했다면, 실제로는 그 관계가 역구경 되었고 노동운동이 쇠락하게 되었습니다.<sup>25)</sup>

전반적으로 1993~1994년경 경기노련과 안노대는 표면적으로는 연대활동을 유지하면서 내적으로는 노선 및 세력 싸움을 진행하고 있었다. 이런 ‘경쟁적 협조관계’는 1994~1995년 민주노총 건설 방안을 둘러싼 갈등이 매우 첨예해지면서 균열을 일으켰다. 예를 들어, 안산이 속한 경기남부지역의 경우 전노협 해소—노운협 쪽은 전노협 ‘해소’가 아니라 ‘청산’이라고 본다—와 민주노총 출범을 위한 안건은 1995년 말부터 1차 회의만 30회를 넘기는 등 2년여를 끌다가, 결국 민주노총 상급단체가 두 개로 결성됐다. 전노협 해산을 반대한 노운협은 경기노련에 참여하고 있던 노동조합을 중심으로 범외 노조인 경기남부민주노총을 결성했고, 안노대에 참여했던 흐름들은 민주노총경기남부와 이 단체 산하의 민주

24) NL계열 중에서 석탑의 노동교육연구소는 1994년경 한국노총 민주화론을 주장하면서 한국노총으로 들어가게 된다.

25) ○○○(\*\*\*\*, \*, \*\*\*\*, \*\*\*\*)이 구술하였다.

노충안산지구협의회를 따로 결성했다. 당시 안노대에 참여했고 민주노총 출범에 동의했던 현장 좌파는 정치적으로 노우협에 가까웠으나 최종적으로 전노협 해산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물론 민주노총은 민주노총경기남부협의회를 공식조직으로 인정했다. 이런 일련의 과정 속에서 노동운동 내부 편 가르기와 활동가들의 줄 세우기가 격심해졌으며, 무엇보다도 경기노련과 안노대 소속 사업장들 간의 연대가 급격하게 약화되었다. 이 시기를 경험했던 노동운동가에 따르면 이런 첨예한 갈등이 명확히 드러난다.

요렇게 두 그룹이 있었는데 서로 어용인줄 알았어요. 저쪽 조직에 있는 노동조합에 대한 음해가 너무 심하고, 여기는 요쪽이 심하고. 경기노련 안산지구협의회 대표자회의 때 안건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끼리끼리 문화가 많아서 엄청나게, 처음에는 되게 적응이 안됐어요. 자기와 다른 조직에 대해 굉장히 배타적이고, 예전에는 막 칼부림까지 나고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갈라치기를 현장 밑바닥까지 해가지고. 현장 사람들, 현장 간부들이 이미 그렇게 다 편제가 돼가지고, 니 편 내 편 이래가지고, 활동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죠.<sup>26)</sup>

이런 누적된 갈등은 전반적으로 1997년을 전후 해 안산 노동운동의 ‘분열기’로 표출되었다. 분열기의 주요 특징을 앞질러 요약하자면, 첫째 노동운동 외곽단체의 역할이 축소된 반면 민주노총 중심으로 노동운동이 재편되었다. 둘째, 1996년경부터 지역의 연대 투쟁과 기풍이 침체되었다. 셋째, 정부와 회사 측의 강도 높은 탄압으로 경기남부민주노총 핵심 사업장 민주노조들이 고립된 투쟁 끝에 해체되었다. 넷째, 노동운동 외부 조건으로서 IMF 외환위기가 가져온 경제 불황과, 이로 인한 자본의 노동절약적인 구조조정은 노동운동을 전반적으로 쇠퇴시켰다. 이러한 특징 가운데, 여기서는 노동운동 내부의 요인이라 할 수 있는 연대 기풍의 쇠퇴와 분열에 초점을 맞추어보자.

적어도 노동자대투쟁(1987년), 600블록투쟁과 경기노련 결성(1989년), 금강공업분신투쟁(1990년), 총액임금제반대투쟁(1992년)은 안산 지역을 대표하는 투쟁이었고, 이것들은 연대사업과 투쟁을 통해서 노동운동을 강화하는 기능을 했다. 1990년대 후반, 이러한 일련의 투쟁을 잇는 투쟁을 꼽는다면, 1996년부터 진행된 한국후꼬꾸와 덕부진흥의 민주노조사수와 구조조정반대투쟁이라고 할 수 있다. 두 민주노조는 경기남부민주노총의 ‘전투적 기풍’을 지닌 대표적인 사업장이었지만 장기투쟁 끝에 노동자 세력이 패배했다. 여러 제보자들은 이런 결과의 원인을 노동운동의 연대약화와 분열에서 찾았으며, 이는 나아가 덕부진흥과 한국후꼬꾸 노조에 대한 탄압, 경기남부민주노총 안산지구의 약화, 전체 안산 노동자 세력 약화라는 일련의 연쇄 효과를 가져왔다고 평가했다.<sup>27)</sup> 무엇보다 이는 1990년대 후반 이래 안산에서 진행된, 반노동적인 신자유주의 구조조정—특히 고용인원의 축소, 기계화와 자동화를 통한 탈숙련화, 비정규·이주·여성 노동자를 통한 고용의 유연화, 최저임금 수준으로의 임금억제 등 고용조건 악화, 입주기업의 영세화를 통한 반월공단의 재생, 중국 등 국내외 지역과의 지리적 경쟁의 확대 등—이 관철되는 계기를 마련했다.

경수노련의 경우, 한국후꼬꾸, 덕부진흥 투쟁이 무너지는 핵심 계기였어요. 당시 투쟁전술은 모르겠지만, 전체적으로 우선 사회주의 이후 노동운동의 하강기였고, 다음으로 지역연대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 원인은 첫째, 조직이기주의로서 우파와 PD쪽(민주노총경기남부)과 같이 하지 않고 (경수노련 쪽이) 자기사업장 투쟁이라고 연대시도를 하지 않았어요. PD쪽은 수동적으로 연대

26) ○○○(\*\*\*\*, \*, \*\*\*\*, \*\*\*\*)이 구술하였다.

27) 경수노련과 관계된 활동가는 후꼬꾸와 덕부진흥이 ‘깨지고’ 나서도 경기남부민주노총이 완전히 와해된 것은 절대 아니고 수원, 오산, 화성뿐만 아니라 안산에서도 여전히 소속사업장들에게 영향력을 발휘했다고 한다.

하는 상태였고요. 그리고 우파가 힘을 신지 않아 투쟁이 결국 고립되었죠. 둘째, 자본이 노련했는데, 덕부진흥을 용역(강패)을 투입해서 깬 다음 후꼬꾸를 상대함으로써 투쟁적인 핵심사업장을 무너뜨렸죠. 당시에 우파와 사회주의권 몰락 이후 대거 현장을 떠난 한물 빠진 PD쪽은 별로 투쟁도 없었고, 교섭 정도를 수행했고, 지역에서 힘이 작동하지는 않았어요. 후꼬꾸, 덕부진흥, 대원산업, 계양전기가 당시 지역노동운동에서 튼실한 노조였고, 이 노조들이 무너진 다음 경수노련이 얼마간 시차는 있지만 민주노총에 결합한 결과가 되었죠. 또한 그것이 노동운동의 동력이 무너지고 노동운동이 무너지는 계기가 되었습니다.<sup>28)</sup>

민주노총 출범을 계기로 표출된 노동운동의 균열은 안산지역 연대투쟁을 어렵게 만들었으며, 결과적으로 노동운동의 급격한 약화를 가져오는 원인이 되었다. 이에 더하여 당시는 IMF 외환위기 전후였고 이로 인하여 불황이 안산 지역을 휩쓸면서 전반적인 정세가 노동운동에 매우 불리했다. 기업들은 위기를 가능한 한 노동조합에 전가하려 했고, 만약 구조조정에 저항할 경우 물리적 탄압—특히 ‘용역 강패’ 투입과 이에 대한 공권력의 묵인—, 민형사상 고소·고발을 통한 구속, 장기투쟁으로 ‘의도적으로’ 몰아가는 방식으로 노동자들을 압박하여 민주노조를 해산시키거나 무력화시켰다. 이러한 물리적 탄압 이외에도 다양한 구조조정 메커니즘을 활용했는데, 예를 들어 (부분 혹은 전면) 공장폐업의 통보, 소사장제와 아웃소싱의 확산, 비정규직(특히 파견직)의 도입, 이주노동자와 여성노동자의 활용, 해외 및 지방 이전 등이 강도 높게 진행되었다. 이러한 조치들은 정리해고와 고용불안, 노동의 주변화를 수반했고, 이는 당시까지만 해도 비교적 고용이 안정적이었던 정규직 노동자를 주축으로 한 노동운동의 토대에 불리하게 작용했다. 이런 상황은 전국적으로 공통적이었지만 특히 안산지역의 경우, 노동운동 진영이 노동운동탄압과 구조조정에 공동대응은커녕 분열상을 노출하여 대다수 투쟁이 단위 사업장 별로 고립되어 실패했다. 역설적으로 연대투쟁이 가장 필요한 시기에 노동운동이 분열된 것이다. 연이은 투쟁의 실패가 안산 노동운동에 던지는 의미도 컸지만, 이는 또한 노동운동의 세력 교체를 가져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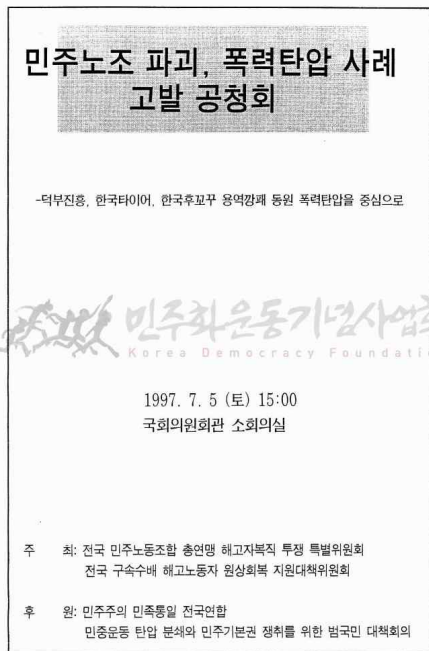
97년도 98년도 이럴 때, 전노협정신 계승하는 주축인 사업장이 후꼬꾸, 덕부진흥이 있었는데, 굉장한 공안탄압을 받았잖아요. 후꼬꾸가. 노동조합이 무너지면서 안산에 판도가 바뀌어버렸죠. 동광산업, 후꼬꾸, 덕부가 여기 주축이었는데, IMF 맞으면서 그리고 공안탄압 맞으면서, 후꼬꾸는 현재 노동조합이 없는 상태고 덕부는 회사가 천안으로 이전해버렸어요. 공장 이전과 공안탄압과 이렇게 맞물려서, 예전에 경기노련의 주축이었던 안산지역의 사업장들이 망해버렸어요. 그러면서 그 이후에 민주노동당 쪽 흐름들(한벗노동사회와 NL계열)이 10년 동안 인제 계속해서 안산지역을 책임지고 가고 있는 셈이죠.<sup>29)</sup>

한편 경기남부민주노총은 1999년부터 해산 논의를 시작해서 2001년에 발전적으로 조직을 해소하고 현재의 민주노총체제로 결합했다.

당시 우리 (경기남부민주노총) 소속 사업장이 열 몇 개었는데, 수원 몇 개, 안산 몇 개, 안양 몇 개 있었어요. 해산하고 공식적으로 민노총 각 지역조직 소속으로 들어갔죠. 그동안 이정도 했으면 됐다, 운동의 대의를 보여주고 안 깨졌으니까, 새로운 시대의 운동에 맞게 통일단결해서, 그 안에서 내용적인 풍토를 만들자, 그런 입장이었죠.<sup>30)</sup>

28) ○○○(\*\*\*\*, \*, \*\*\*\*, \*\*\*\*)이 구술하였다.

29) ○○○(\*\*\*\*, \*, \*\*\*\*, \*\*\*\*)이 구술하였다.



덕부진흥, 한국후꼬꾸, 한국타이어 노조 파괴 고발 공청회 자료집



한국후꼬꾸 노조의 일본 도쿄타워 농성 기사(《동아일보》 1997.12.14)

반면에 민주노총지구협의회와 한빛노동자회의의 입장은 두 민주노총 체제를, 운동이 대승적으로 성장하는데 따르는 ‘성장통’으로 간주했다. 결과적으로, 2천년대 들어 노동운동은 한빛노동자회가 모태가 되었던 NL계열이 주도하는 민주노총안산지구협의회로 재편됐다. 앞서 언급한대로 주목할 만한 현상을 한 가지 언급해두자면, 민주노총안산지구협의회가 출범하고 나서 민주노총은 안산지역의 여러 노동조합 관련 사업을 노동운동단체로부터 넘겨받았다. 여러 제보자들은 이에 대한 평가를 상당히 달랐다. 어떤 이들은 이제 노동자 자체 역량이 충분히 증대했기 때문에 더 이상 외곽에서 노동조합을 지원하는 노동운동단체가 불필요하다고 본다. 다른 이들은 민주노총과 특정 정파만이 현장 활동을 주도하는 결과를 가져와 연대 사업과 정신을 약화시켜 결과적으로 투쟁력이 쇠퇴했다고 평가했다. 다시 말해, 노동조합사업을 민주노총이 주도함에 따라서 여러 외곽 노동운동단체가 노동조합에 개입할 수 있는 자율적 활동 공간이 점차 협소해졌다는 것이다.

민주노총이 만들어지면서 지역 단체들이 거의 소멸했지요. 자기 역할을 못 찾게 되었어요. 민주노총이 만들어지기 전에는 현장간부들을 단체에서 조직했는데, 그 후에는 민주노총이 조직했어요. 민주노총이 현장에 뒷받침이 되긴 했지만, 단체에서 하던 모든 역할을 맡다보니 단체가 유명무실해졌어요. 이후 단체들이 해산을 하게 되고, 현장노조는 짧게 활기를 얻긴 했지만, 얼마가지 못해 지금까지 침체기를 겪고 있죠.<sup>31)</sup>

여하튼 이제 노동조합관련 사업은 민주노총지구협의회를 중심으로 재편되었고, 2001년 경기남부민주노총이 해산한 이후 이 구도는 지역에서 고착화되었다. 한편 노동운동단체들이 노동운동에서 역할이 축소되자, 이들은 직접적인 노동조합 사업보다 정당운동과 주민운동을 담당하는 정치조직으로 전

30) ○○○(\*\*\*\*, \*, \*\*\*\*, \*\*\*\*)이 구술하였다.

31) ○○○(\*\*\*\*, \*, \*\*\*\*, \*\*\*\*)이 구술하였다.

환했다.<sup>32)</sup> 민주노총지구협의회 체제가 지역 노동운동에 가져온 또 다른 중요한 역기능을 덧붙일 필요가 있다. 안산의 민주노총(그리고 산별체제로의 재편)은 노동운동의 중앙집권화를 수반했는데, 이는 무엇보다 노동현장 활동 위축과 지역운동의 관료화, 나아가 제한된 인원과 자원으로 인해 노동조합 활동의 공백을 유발했다. 민주노총의 수직적 산별체제는, 예를 들어 반월공단 전체를 대상으로 한 ‘지역’ 중심 활동이 적합한 경우에도 밑으로부터의 유연한 활동과 연대를 어렵게 했고, 게다가 복잡한 지역 및 산별조직이 오히려 활동을 저해하는 경우도 생겼다. “산별 연맹의 활동이 커질수록 충돌이 생겼어요. 같은 일을 두 번 하는 셈이라서, 지구협의 지역 일상 활동을 연맹으로 이관했죠. 그러다보니 지역운동의 공동화 문제가 발생했다.”<sup>33)</sup>

이상을 정리하자면, 1990년대 안산 노동운동은 PD계열 다수파의 운동방향 전환, 노우협 세력의 쇠퇴, NL 계열 중심주의의 재편을 특징으로 한다. 되짚어 볼 때, 전반적으로 경기노련은 전노협시기까지 전체 운동에서 핵심적 역할을 했지만, 현실사회주권 몰락과 민주당의 선거 참패는 안산노련에 참여했던 다수가 노동운동을 청산하거나 시민사회운동으로 향하게 했다. 이런 노선전환은 노동운동 세력과 전망을 둘러싼 경쟁을 경기노련과 안산노련에서, 경기노련과 NL계열인 한빛노동자회로 이동시켰다. 곧 이어진 안노대 시기에 전노협 경기노련과 안노대가 상호 경합했지만, 적어도 이 시기까지는 노동운동단체와 노동조합연대조직, 그리고 노동조합의 연대투쟁기풍은 대체로 유지되었다. 그러나 이런 경쟁 상태는 노동운동을 성장시키는 긍정적인 분화에서 전체 노동운동 동력을 하락시키는 부정적인 분열로 전환되었다. 노우협과 안노대는 민주노총 조직전망을 둘러싸고 노선갈등과 ‘패권경쟁’을 벌였고 경기남부민주노총과 민주노총경기남부로 분화했다. 이런 분열과 함께, 잇따라 닥친 IMF를 맞아 진행된 노동탄압과 구조조정은 특히 노우협의 쇠퇴를 가져왔고, 이는 안산 노동운동을 민주노총지구협의회 체제로 재편했다. 한편 대다수 노조사업을 민주노총에 넘겨준, 기존 외곽 노동운동단체들은 노동운동에서 정당운동과 지역운동으로 활동을 전환했다. 이는 구조조정, 노동운동의 분열과 쇠퇴, 민주노총 사업방식에 대한 반발 등과 같은 노동운동 안팎의 각종 요인이 작용했다. 덧붙여 적어도 이러한 일련의 과정은 노동운동의 ‘관료화’와 지역노동운동의 ‘공동화’를 발생시켰다.

##### 5. 침체기(2000 이후) : 연대사업의 약화와 노동운동의 침체

우리도 현장 활동가들이 있기 때문에, 투쟁하는데 갈 수가 있고, 가면은 말하고 교육이 필요하면 교육도 안내해주고 이야기 하는데, 지금 민주노총은 노동조합 질서 속으로만 사업을 하고, 사업장을 유지하려고만 하지, 이런 단체가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혼동세력이라고 하고, 쫓아내게 하고, 저 사람은 쓸 필요도 없다고 해요. 근데 우리 같은 단체도 다양하게 서로가 공존해야 되는데, 자기 (라인이) 아니라고 정문에서 밀려 나온 적도 있고 그래요. 필요 없다고 가시라고.<sup>34)</sup>

2000년대 안산 노동운동은 ‘침체기’를 겪고 있다. 특히 이 시기에는 현(現) 주류(NL계열)의 ‘패권’과 노동운동의 ‘분열’이 고착되었다. 이런 영향 아래 나타난 노동운동의 양태는 노동조합 조직률의 하락,

32) 우선 현재 민주노총을 주도하는 입장의 모태였던 한빛노동자회는 국민승리21을 거쳐 민주노동당으로 이어지고, 이 중에서 민주당과 한국노동당 시절에 합류한 일부가 현재 진보신당으로 분당한 상태이다. 경수노련은 현재 사이버노동대학과 전태일을 따르는 민주노동연구소 활동을 하고 있다. 한빛노동자회와 NL계열은 1987년 대선과 1992년 총선에서 시기상조론을 내세워 비판적 지지를 했지만, 노동조합 사업을 민주노총 중심으로 재편하고 노동운동단체에서 정당조직으로 전환한다.

33) ○○○(\*\*\*\*, \*, \*\*\*\*, \*\*\*\*)이 구술하였다.

34) ○○○(\*\*\*\*, \*, \*\*\*\*, \*\*\*\*)이 구술하였다.



민주노조의 와해와 개량화, 연대사업의 형식화와 노조투쟁의 고립, 노동자 의식의 하락, 새로운 조직화 사업의 실패, 지역운동과 주민운동으로의 전환 시도 등이다.

우선 노동조합의 조직률과 민주노조의 대표성이 눈에 띄게 떨어졌다. 2006년 안산상공회의소 추산에 따르면, 반월공단 전체 3,000여 업체 중 노동조합이 결성된 곳은 123개로, 노동조합 결성률은 4.1%에 불과했다. 그나마 민주노총 사업장은 0.3%에 불과했으며 평균조합원수는 100명을 넘지 못하였다. 물론 산업구조의 변화, 자본의 영세화, 노동탄압으로 인해 직접적인 단순비교는 힘들지만, 앞의 [표 2]에서 보듯이 1992년에 1,161개 사업체 중 노동조합이 294개, 결성률이 25.3%였던 것에 비하면 조직률은 현격히 떨어진다. 그리고 위의 극히 미미한 가입률에서도 드러나지만 실제로도 민주노총은 안산의 노동자 전체를 대표한다고 볼 수 없다. 현재의 민주노총은 고용인구가 많은 제조업, 서비스업, 공공부문보다 공무원노조와 교원노조의 비중이 높은데다가 상대적으로 규모가 크고 임금수준이 높은 정규직 중심인데 비해, 안산시의 사업체는 평균 고용인원이 17.3명에 불과할 정도로 중소기업사업장이 대부분이다. 게다가, 안산의 고용구조는 정규직 보다는 비정규직이 더 많고, 또한 높은 수준의 이주노동자를 고용하고 있지만, 민주노총은 노동인구의 상당수를 차지하는 이들을 대표하지도 못한다. 한 계보자에 의하면, 상대적으로 정규직 비중이 높은 제조업의 경우만 해도 비정규 노동(상당수가 파견노동)이 평균 30~40%에 달하고, 대형 마트와 자영업 등 민간 부문 서비스 노동과 청소미화 노동 등 공공 부문 서비스 노동의 경우는 이보다 훨씬 높다고 한다.

이런 대표성의 위기는 연대수준 위기와 떼려야 뗄 수 없다. 흔히 노동운동은 질적 지표의 하나로 연대수준을 중요시 한다. 안산의 경우 우리가 노동운동의 다양한 층위에서 행해지는 연대 상태를 살펴보면, 연대활동의 형식화를 관찰하게 된다. 첫 번째, 주목할 현상은 주류의 패권으로 인해 노동운동 단체들 간의 연대가 사실상 유명무실해진 점이다. 두 번째, 현(現) 주류가 민주노총을 주도하고 노동조합사업과 노동현안을 독점하면서, 민주노총과 단체 간의 연대, 노동조합 간의 연대, 현장조직과의 연대도 형식적이기는 마찬가지다. 세 번째, 민주노총 사업장을 비롯한 정규직 노동조합이 비정규직과 이주노동 문제에 해결에 별반 기여하지 못하고 있고 그나마 진행 중인 사안별 공대위조차 형식화되고 있다. 네 번째, 민주노총 사업장이 아닌 곳에서 노동조합이 결성되거나 노동현안이 발생할 경우 연대사업이 매우 소극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처럼, “현재 안산지역 연대투쟁은 지역 대중투쟁으로 상승하지 못하고, 사안별·사업별 연대투쟁도 극히 취약하다.”<sup>35)</sup> 이에 대해 민주노총은 조직의 관료화와 경직성, 인원과 자원의 부족을 주된 장애 요인으로 보지만, 대다수 노동운동가 활동가들은 결과적으로 지난 10년간 지역 노동운동을 주도하고 있는 주류의 패권을 원인으로 꼽고 있다. 실제로 이들 주류는 민주노조 강화, 현장사업 강화, 지역 활동 강화, 연대투쟁 강화를 주장하는 단체들을 노동운동 현장을 ‘혼란스럽게 만드는’ 세력으로 간주하고 있다.

형식적으로 지역에서 ‘산별’로 투쟁이 안 됩니다. ‘지역’으로 연대투쟁이 효과적인데 지역이 상급 조직의 집행조직체계가 되면 지역조직이 필요 없죠. 심부름 잘하는 사람 몇 명 있으면 됩니다. 이러면 ‘죽는 거다’, 산별도 하고 지역체계가 되어야 시너지가 나는데. 계급 단결이 되고, 지역 축을 무력화하면 산별이 기업별 체계의 확대판이 될 뿐이고 개량화되고 운동이 약해지는 구조가 정착되는 것이죠. 민주노총에 들어가고 나서 소속 사업장들이 하향평준화 됐습니다. 연대수준은 떨어졌고, 의식, 의협심 이런 게 퇴색했죠.<sup>36)</sup>

안산 노동운동이 당면한 시급한 현안은 유명무실해진 지역연대 복구와 함께, 위에서 언급한 비정규

35) ○○○(\*\*\*\*, \*, \*\*\*\*, \*\*\*\*)이 구술하였다.

36) ○○○(\*\*\*\*, \*, \*\*\*\*, \*\*\*\*)이 구술하였다.

직, 특히 파견노동 문제와 이주노동자 문제이다. 그러나 이들에 대한 실질적인 조직사업은 실패하고 있다.

첫째, 비정규직 문제를 살펴보자. 민주노총은 불안정 노동에 대해 끊임없이 관심을 보이지만 실제로는 정규직 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사업에 치중하고 있으며, 그나마 안산시흥비정규노동센터를 중심으로 한 노력은 도시와 공단 전체를 포괄하지 못하고 있다. 현재 안산의 비정규 노동은 대략적으로 제조업(특히 영세사업장)의 불법 파견노동, 대형마트 등의 서비스노동, 공공부문의 계약직 문제로 볼 수 있다.

우선 제조업은, 반월공단이 낮은 기술의 저임금에 기초한 중소 하청업체를 위주로 하기 때문에 저임금, 저숙련 노동을 고용할 수밖에 없다. 게다가, 구조적으로 이런 중소기업체들은 불안정한 물량변동에 대처하기 위해 고용유연성을 높일 수밖에 없다. 이런 구조적 상황은 약한 자본력과 높은 유성성이 결합된 공단체제라 할 수 있고, IMF 이후 이는 거대한 파견용역직 노동시장을 안산에 탄생시켰다. 이런 공단체제와 노동시장에 노동운동은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 문제는 이런 상황이 점차 강화되고 있고, 부담이 노동자에게 전가되는 형태로 진행된다는 점이다. 결과적으로, 현재 안산의—(비)정규직—노동자들은 고용불안은 물론이거니와, 최저임금에 가까운 임금으로 높은 노동 강도와 장시간 노동을 감내하고 있다. 물론 노무관리방식도 여전히 노동운동의 한계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여성 비정규직노동자가 많은 대형마트 같은 곳은 노동운동의 접근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있고, 심지어는 노동관련 홍보물조차 ‘취 잡듯이’ 검열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공공부문은 노동자에 대한 연고채용을 광범위하게 활용하여 노동을 통제하고 감시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비정규직들은 자신의 권리를 인식할 여력조차 없이 생존경쟁에 내몰린 상태이다. 이에 대해 노동운동 진영은 문제를 인식하고는 있지만 여전히 적절한 방안을 찾지 못한 채 작업장을 조직화하는데 실패하고 있다.

둘째, 안산 노동운동은 이주노동자 및 이주노동운동과 분리되어 있다. 안산은 비공식 추산 약 7만 명에 이르는 이주노동자를 보유하고 있고, 단원구 원곡동은 이들의 밀집 주거지로 전국적으로 잘 알려져 있다. 하지만 이주노동자와의 연대활동은 민주노총이나 주류인 NL계열이 아니라 PD계열 소수인 현장파 노동단체와 종교단체를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을 뿐이다. 그나마 2000년대 초부터 경기이주노동자와 경기이주공대위가 활동하고 있으나 그마저도 고용허가제를 전후로는 조직된 이주노동자들이 추방되거나 한국을 떠났고, 지금은 매달 열리는 이주문화제 같은 행사를 통해 소극적 형태로 미조직 대중을 만나는 정도에 머무르고 있다.<sup>37)</sup>

셋째, 안산에서 여성노동 문제와 정책은 크게 부상한 적이 없다. 한 제보자는 이를 다음과 같이 고백한다.

저희가 솔직히 말하면, 한국노총이나 민주노총이나 다 남성중심 사고였기 때문에 평등에 대한 얘기, 성희롱에 대한 얘기, 가부장적인 얘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민주노총이나 이런 사람들도 받아들이지 않아요. 평등, 성인지적 관점, 젠더적 관점에 대한 이런 거에 대해서 받아들이지 않고 있고, 다 남성 중심적으로. 가장 문화 중에서 가부장적인 문화가 센 곳이 기업문화라고 하잖아요. 그것들을 그대로 갖고 있어요.<sup>38)</sup>

노동조합활동과 노동운동단체의 위축, 연대수준의 하락, 노동자 단결의 쇠퇴 등은 노동운동의 분열 탓만은 아니다. 앞서도 언급했지만 우리는 기업의 노무관리방식, 노동운동에 대한 탄압, 반월공단의

37) 여기서는 이 문제를 짧게만 언급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이주노동운동에 대해서는 몇 편, 몇 절, 몇 장을 참조하고, 이주노동과 원곡동의 역사에 대해서는 몇 편, 몇 절, 몇 장을 참고하라.

38) ○○○(\*\*\*\*, \*, \*\*\*\*, \*\*\*\*)이 구술하였다.

구조적 특징을 함께 고려해야만 한다. 반월공단은 IMF 외환위기 이후 영세화, 유연화, 한계노동화, 지리적 이전 등이 동시에 추진되었다. 이런 전략을 추구하기 위해 정부와 기업은 단순 노무관리 차원을 넘어 노동운동을 지속적으로 탄압해왔는데, 특히 일상화된 구조조정을 위해 물리적·법적 폭력수단을 활용해왔다. 여러 노동운동 활동가들의 제보를 종합하면, 1990년대 중후반 이후 기업은 용역강패와 같은 사적 폭력수단을 동원하고, 정부는 경찰을 비롯하여 법원과 같은 법적·공적기구를 동원해 민주노조의 와해와 무력화에 협력하고 있다. 특히 이는, IMF 외환위기 이후 강화되어 왔고, 무엇보다 단순한 임금 억제와 단체협약을 유리하게 이끌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공격적으로 민주노조 파괴를 목적으로 진행되는 것이다. 2000년대 이후 안산지역 투쟁의 특징을 살펴보면 이런 점이 분명히 드러난다.

[표 4] 2000년대 안산지역 주요 투쟁사례

유형	사업장	특징
정리해고 반대	신명전기	장기투쟁, 한국노총사업장, 민노총연대소극적
	모나미	해외공장이전, 장기투쟁
	안산공대	장기투쟁, 연대투쟁, 비정규직(조교)
	대성산소 용역기사 노동조합	비정규직(용역기사), 서울본사 점거농성
	한도병원	법인이전, 해고투쟁, 연대투쟁(서비스업)
	과카한일유압	장기투쟁
	승림카본	장기투쟁
구조조정 반대	동광, 기아모텍, 창화, 창흥	노조해산
	삼남	무교섭 선언
	동서공업	급속노조 탈퇴 진행
	대양금속	노조해산, 지방이전
노조건설 사수	시흥안산일반노조 금창공업	장기투쟁
	성림유화	노동단체와 지구협 분열
	동아공업	장기투쟁
	거도산업	매각·폐업 노조해산, 장기투쟁
	우리노동조합, 새술, 경기도노조 안산분회	노조해산
노조탄압 저지	우신공업, 한국후꾸꾸, 덕부진흥	탄압·이전 노조해산
	동진세미캠	민주노총 탈퇴
기타	신흥, 계양전기	단체협상 장기화, 장기투쟁
	서부건설노조, 목수파업	비정규직(일용직)

출전 : 백승연, <안산지역 투쟁사례를 통해본 노동운동의 현실과 과제>, 2005, 수정보완.

비고 : ① 노조탄압과 이전으로 노조를 해산시키는 방식은 1990년대 말 대표사례이다.

② 투쟁유형과 특징은 한 사업장에서 어느 정도는 동시에 나타나고 있다.

[표 4]에 제시된 것처럼, 2000년대 안산지역 주요 투쟁사례의 공통 이슈는 생존권 사수와 민주노조 사수이다. 그리고 그 결과는 노동조합이 회사의 구조조정과 정리해고를 수용하거나 민주노조가 해산되고 무력화된 것이다. 몇 가지 전형적인 사례를 살펴보자.

첫째는 반월공단에는 완성차업체에 납품하는 회사가 많은데, IMF외환위기 이후 진행된 완성차업체의 구조조정, 해외이전이 부품하청회사에 영향을 미친 경우이다. 이 과정에서 노동자들은 제대로 대응을 못했고, 기아모텍, 창화, 창흥 등의 노동조합이 해산되었다. 둘째는 회사의 폐업이나 이전으로 노동조합이 해산된 경우이다. 거도산업, 동진세미캠, 동광산업, 대양금속 등 많은 수가 이런 사례에 해당한

다. 셋째는 민주노조사수를 위해 투쟁한 경우이다. 우리노동조합, 새술, 경기도노조 안산분회 등은 민주노조를 건설하자마자 회사의 탄압으로 해체된 경우이며, 금창공업, 성림유화, 동아공업, 거도산업 등도 민주노조사수 투쟁을 벌였다. 한편, 과거에는 민주노조의 중추였던 핵심사업장들이 무쟁의 선언, 무교섭 선언, 노사화합 선언 등을 하면서 개량화를 겪은 경우도 있고, 이구산업이나 동진세미캡처럼 노조에 대한 탄압 이후 민주노총을 탈퇴하거나 탈퇴를 시도한 경우도 나타났다. 이런 양상들은 개별적이라기보다는 한 사건에서 복합적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예를 들어 2004년부터 3년 동안 장기투쟁이 벌어졌던 대양금속은 폭력경비 투입과 부분직장폐쇄, 이른바 ‘공권력의 엄호’를 거쳐 지방으로 설비를 이전하였고, 시화공단의 사례이긴 하지만 현재 투쟁 중인 파카한일유압도 마찬가지로 진행 중이다.

특히 2000년대 이후 두드러진 양상은 장기투쟁 형태이다. 장기투쟁이 증가하는 원인은 첫째, 회사 측이 의도적으로 단체협상을 늦추면서 노동조합에 쟁의의 책임을 전가하고, 동시에 노동조합과 활동가를 일반 조합원과 분리하는 방식으로 노동조합을 무력화하기 때문이다. 둘째, 회사 측이 구조조정 관철을 위해 일시적인 양보보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민주노조를 제거하는 방식을 선호하기 때문이다. 이런 사례는 신명전기, 금창공업, 동아공업, 거도산업, 승림카본, 대양금속, 파카한일유압에 이르기까지 무수히 많다. 예를 들어, 지역연대투쟁이 활발했던 금창공업은 2003~2004년에 375일 간 전면총파업을 했으며, 동아공업도 2002년 노조 건설 이후 1년 간 투쟁을 통해서 비로소 노동조합을 인정받았다.

안산지역은 지역의 투쟁하고 있는 사업장들을 중심으로 ‘투쟁사업장연석회의’가 주1회 진행 중에 있다. 투쟁사업장이 대부분 해고투쟁이 중심이기 때문에 투쟁사업장 집회와 선전전을 중심으로 사업이 전개되고 있다. 이 중 동아공업과 거도산업은 중소기업장으로서 조합원이 50명이 채 안 되는 상태에서 장기파업을 벌인 사업장이다. 중소기업장 자본가의 탄압은 조그마한 투쟁에도 폭압적이고 공세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조합인정, 조합활동 보장 등의 최소한의 요구마저 투쟁하는 과정에서 고소고발을 남발하고 있고 조합간부를 구속시키고 용역강패를 투입하여 조합원들에게 폭력을 일삼고 있으며 폐업까지 감행하는 현실이다. 폭압적이고 공세적인 자본가의 탄압을 저지하려는 안산지역의 연대활동은 지원방문과 향의집회의 수준으로 수세적이고 소극으로 진행되고 있다.<sup>39)</sup>

덧붙여, 이런 폭력적인 관리방식이 통용될 수 있는 반월공단의 구조적 조건, 특히 IMF 외환위기 이후 입주 업체의 영세화를 통한 공단재생이 낳은 노동자권력의 약화를 언급해 둘 필요가 있다. 현재 반월공단 입주업체 가운데, 300인 이상 고용업체는 현재 0.3%에 불과하고, 입주업체당 평균 고용인원도 2천년대 초반 약 30명 선에서 지금은 약 18명 이하로 떨어졌다. 이들 업체는 주로 반·미숙련 노동을 고용한 경우가 많으며, 더군다나 종업원 3~4명에 불과한 말단 하청회사도 다수 있다. 이런 상태는 노동의 대체가능성을 높이는 등 노동의 협상을 약하게 한다. 이에 반해 회사는 대화보다는 노동조합 활동을 해태하고 무력화하기 위한 수단을 이용하기 쉽게 했다. 예를 들어, 기업의 입장에서, 생산성의 큰 하락 없이 이미 활성화된 파견노동자를 투입할 수도 있고, 극단적인 경우 폭력 용역업체를 일시적으로 고용해도 비용부담이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이다.

이러한 노동의 불리한 처지에도 불구하고, [표4]와 같은 사례들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은 여전히 현장이 투쟁하고 있음을 반증한다. 2000년대 이후에도 안산 노동운동은 다양한 조직화 방식을 시도해왔다. 이는 노동영역의 조직화와 생활영역으로의 전환이라는 두 방향으로 진행되었다. 첫 번째 방향은 중소기업사업장의 한계를 뛰어넘어 공단 전체를 조직화하기 위한 노력, 특히 일반노조

39) <작은 사업장, 질긴 노동자들의 투쟁은 오늘도 계속 된다>, 《참세상》(<http://www.newscham.net>), 2005. 5. 21.

형태가 도입되었다. 또한 노동운동단체들은 현장조직의 활성화와 사이버노동대학을 통한 활동가 및 노동자 재교육 사업을 통해 민주노총 중심 운동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했다. 이런 맥락에서, 공단 전체 작업장을 조직한 대표적인 성공 사례는 건설 일용직을 조직한 서부건설노조와 근래 있었던 목수파업이다. 그리고 학교비정규직 조직화, 안산공대연대투쟁, 한도병원투쟁, 한양대학교투쟁 등은 안산지역에서 연대활동이 어느 정도 작동한 사례로 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제보자의 언급처럼 “힘들여 개별사업장을 조직하는 건 가능했지만 공단 전체를 바꾸어내지는 못했다.” 왜냐하면 자본은 노동력 분할(즉,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분할)을 공단 전체에 걸쳐 통제하고 있고, 노동운동은 분열되었으며, IMF 외환위기 이후 노동조합의 패배 경험은 노동자 의식을 실리적인 생존관념으로 전환시켰기 때문이다. 이런 한계에 직면하여, 안산 노동운동은 노동자의 생활세계로 눈을 돌리고 있다. 물론 노동운동이 안산에 등장한 이래로 운동진영은 공동육아운동,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을 비롯한 교육운동,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약칭 ‘민예총’)을 비롯한 문화운동, 통일마당을 비롯한 통일운동 등을 전개하는 등을 전개해왔지만 2000년대 들어 외연을 더욱 확장했다. 예를 들어, 노동운동은 현재 활성화된 의료생활협동조합(약칭 ‘의료생활’)을 비롯한 각종 생활협동조합활동, 환경운동, 주민자치활동, 학부모단체활동 등 복지·교육·생활 의제를 중심으로 시민사회운동에 관여하고 있다. 이는 전체적으로 볼 때, 사회운동노조와 공동체노조주의와 맥락을 같이 하고 있다. 하지만 노동영역에서 생활영역으로의 전환은 아직까지 노동자의 조직화와 의식화라는 측면에서는 영향이 미미한 편이며, 이는 오히려 역설적으로 생활영역과 노동영역의 분리를 반증하고 있다.

이러한 여러 가지 다양한 시도에도 불구하고 노동운동의 측면에서 볼 때, 2000년대 이후 안산 노동운동은 조직력 및 연대수준의 하락, 투쟁력의 쇠퇴, 단위사업장의 실리화 추구, 노동운동단체와 민주노총의 갈등이 고착화되었다. 이런 노동운동의 동력 하락은 노동조합 활동의 위축과 특히 노동자 의식 쇠퇴에 영향을 미쳤다. 단적으로, 정규직노동자는 비정규직노동자와 이주노동자를 고용안정의 발판, 힘들고 위험한 일을 하는 존재, 인격적으로 차별해도 되는 쓰레기로 본다. 이는 어느 제보자의 표현처럼 “노동조합이 그나마 힘들게 싸워서 거의 성과 없는” 결과를 낳고 있으며, “IMF 터지고, 조합이 순식간에 와해되고, 해고투쟁하고 3년 만에 들어가니까, 그때 노동자들은 100% 승산이 없으면 일어서지 않고, 회사 말이 마지막까지 먹히게” 만들었다. 이런 경향은 노동운동에 투쟁보다는 협상이 낫다는 관념을 유포했다. 이는 고용불안을 매개로 한 회사 측의 유연화 전략에 극히 취약한 현재의 공단 구조상, 노동운동 진영을 실리적인 노동조합주의로 이동시켰다. 게다가 민주노조의 실리적 경향은 비정규직노동자와 이주노동자와의 연대 약화로 이어졌고, 이는 쳇바퀴 돌듯 자본의 일방적인 분할통치로 인한 노동운동의 약화로 나타났다. 노동운동단체가 유명무실해지고 민주노조가 해산되고 개량되는 현 상황에서, 결과적으로 노동자들은 자본에 순응하는 개별적 생존전략을 택했으며 극심한 노동조건과 저임금을 감내하고 있다. 오늘날 노동운동이 작업장 밖 생활영역으로 전환되고 있지만, 여전히 노동운동의 분열, 자본의 물리적·법적 탄압과 이데올로기적 전략이 운동을 침식하고 있다. 그래도 우리가 ‘노동’이라고 적고 ‘절망’이라고 읽는 현실에서 ‘희망’이라 읽는 시대를 꿈꾸는 것은 여전이 노동이 우리의 삶이고 운동이 그런 삶을 생산하기 때문이다.

심성보 / 전 문화연구시월 연구원